

# 가장 어두운 새벽... '다양성' 꽃피운 중세

## 중세의 재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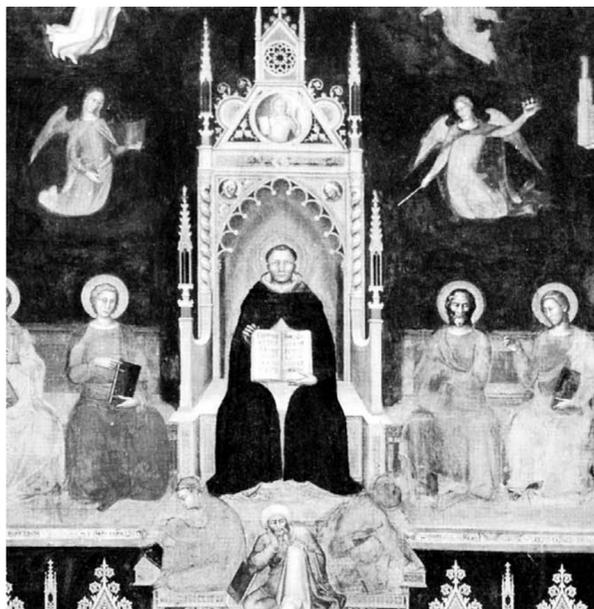
박승찬 지음



지금까지 대체로 중세의 이미지는 문화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쇠퇴한 시기로 인식돼 왔다. 이탈리아 인문주의자 페트라르카(1304~1374)가 고대와 자신의 시대(현대) 사이의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명명한 이후 그 같은 인식이 보편화됐다. 기독교 중심의 신학적 세계관에 갇혀 인간 간의 합리적 이성을 제대로 발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막혀 있었다. 또한 기독교 이외의 신앙에 대해서는 종교재판과 마녀사냥을 통해 이단이라는 굴레를 덧씌워 억압했다.

그런데 과연 중세는 '암흑의 시대'였는가? 지난 20세기 후반에 국내 서양사 학계를 통해 프랑스 아날학과 역사학자들의 주목할 만한 '중세사' 분야의 연구 성과들이 활발히 번역, 출판돼 일정 부분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서양 중세에 대한 이미지가 온전하게 실제 속살을 드러내보았다고 볼 수는 어렵다.

중세 시대를 사상사적, 문화사적 의미로 탐구한 책이 발견됐다. 박승찬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의 '중세의 재발견'은 서양 중세를 결코 서유럽만의 것이 아닌 당



'승리하는 교회'의 중심에 앉아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의 본질을 직관하는 참된 행복을 염두에 둔 윤리학을 전개해 나갔다. (길 제공)

시 선진 문명이었던 인접 비잔틴 문화와의 교류 등을 매개로 다각도로 분석한다. 저자는 중세를 '현대를 비추어 보는 사상과 문화의 거울'이라고 본다.

저자는 중세가 재평가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중세를 비판했던 근대 사상의 문제제기에서 비롯됐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데카르트가 강조되기 시작한 인간 이성

에 도달했지만, 이런 경향을 표면적 이성 이외의 감정, 욕제, 개체들의 소중함을 무시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특히 저자는 "제1~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상과 환경오염 및 점증하는 재해 같은 새로운 위협 속에 모든 것이 덧없어졌다"며 "근대 사상이 야기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 이전으로 되돌아

가 고대 철학과 중세 철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중세의 '다양성'이다. 즉 긴 시간만큼이나 4계절의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고 본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종합한 사상 체계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9세기까지의 추운 겨울을 버텨야만 했다.

일부 학자가 중세의 시작으로 삼는 카를 대제의 문예부흥은 본격적인 발전을 준비한 단계였고 12세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발견을 통해 맞게 된 스킴라 철학의 융성기(13세기)는 놀라운 사상사적 발전을 이룩한 여름(성수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전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14세기 접어들면서 자연 재해와 인간이 저지른 무질서로 중세의 전성기는 막을 내린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고대하는, 계절로 치면 가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각은 다양한 관점을 가능하게 한다. 편견에 의해 왜곡될 수 있고 더러는 새로운 성찰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본다면 저자에게 있어 중세는 "만화경과 같이 다양한 모습을 지닌 정신적·문화적 보화가 가득 담긴 보물창고"라고 부를 만한 것 같다.

"중세처럼 지나간 역사와 문화가 이와 같다면, 유용적이거나 진행 중인 사태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지역감정, 종북 성향, 성적인 차이, 외국인 노동자 및 새터민 등에 대해 너무나 쉽게 판단을 내리고 이를 확산하는 경향이 많다."

(길·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전쟁의 역사를 통해 배우는 지정학=이 책은 지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 유럽, 미국으로 세계를 크게 4분할해 세계의 전쟁사를 살펴본다. 중국은 왜 그렇게까지 센카쿠 열도와 난사 군도에 집착하는지, 러시아는 왜 예나 지금이나 서구 국가들과 친하게 지낼 수 없는 것인지, 미국은 왜 스스로 세계의 경찰을 자처했고 이제는 왜 또 그것을 그만두었는지, 유럽은 여러 문제를 무릎쓰고서라도 EU라는 공동체로 뭉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한 해답을 전쟁과 분쟁의 역사를 고찰함으로써 얻도록 해준다.

〈시그마북스·1만3000원〉

▲구원의 길=13년 전 벌어진 하나의 사건은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형사 모두의 삶을 바꾸어놓았다. '구원의 길'은 한 소녀를 구하려다 난관에 빠진 현직 형사 엘리자베스와 억울하게 살인죄로 13년간 복역하고 영혼까지 망가져버린 전직 형사 에드리아 월, 에드리아에게 죽은 엄마의 복수를 다짐하는 소년 기드온, 그리고 비극적 범죄의 피해자이자 엘리자베스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는 소녀 채닝 이렇게 네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와 얽힌 사건들을 풀어나가는 작품이다.

〈구픽·1만5800원〉

▲투명한 미궁=투명한 미궁'은 사랑과 고독에 대한 가장 기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다. 주인공 오카다는 부다페스트 출장중 우연히 만난 매력적인 여자 미사와 함께 부유층 저택에서 열린 파티에 초대받았다. 알몸으로 감금되다시피 한 채 사



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랑을 나눌' 것을 강요받는다. 기묘하고도 굴욕적인 그날 밤의 경험을 펼쳐내려 노력하고 미사와 만남을 이어나가지만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둘의 관계는 길을 잃고 헤매듯 끝없는 사냥으로 빠져든다.

〈문학동네·1만2800원〉

▲문재인과 친노 죽이기=세상은 이제 친노와 문재인을 공격하는 진보의 실체를 알 때가 됐다. 문재인 발목을 잡는 세력이 있다는 건 웬만하면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그 세력이 같은 당과 진보 진영이라면? 이 책은 잘나가는 팟캐스트, 언론, 유명한 정치평론가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은 우리 내부의 적폐 세력들을 호명한다. 맞아 죽을 각오로 썼다. 분명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재다. 저자 유재일은 말한다. "노무현과 유시민이 같은 당 동지들에게 차마 하지 못한 얘기들을 대신했다."

〈왕의서재·1만3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이럴 땐 어떻게 말할까?=이번호에 출간된 '이럴 땐 어떻게 말할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말과 글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알려 주는 책이다. '스콜라 꼬마지식인' 시리즈 25번째 권으로, 어린이들이 평소에 자주 쓰는 말과 글을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알려 준다. 꼬마 누대 꼬마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생활하며 벌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언어 습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위즈덤하우스·1만원〉

▲별과 큰 우주=어린이 과학 장의 잡지로, 무엇이든 가능한 오기도 세상에서 어린이들 스스로 세상 모든 호기심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도와준다. 오기도 친구들과 함께 우주 곳곳을 탐험하며 신비한 원리를 배우보자. 메시와 친구들 어느 날, 메시는 조이와 펠릭스에게 우주여행을 제안한다. 세 친구는 우주에 있는 별들을 차례 차례 찾아가다. 아무것도 없는 별, 신기한 버섯들이 살고 있는 별, 흔들거리는 땅콩 별, 숨탄 생물이 모여 있는 별. 메시와 친구들은 그곳에서 무슨 놀이를 할까?



〈문학수처리 특북·1만원〉  
▲이모와 함께 도란도란 음악 여행=아주 오랜 옛날부터 함께하며 우리 를 위로하고 행복하게 만든 음악,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신비로운 음악 이야기를 바이올리니스트 이모가 차근차근 들려준다. '이모와 함께 도란도란 음악 여행'은 오랜 역사를 가진 '음악'이라는 예술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룬다. 늘 우리 곁을 흘러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음악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며 사교를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토트북·1만5000원〉

## 팟캐스트 속 조선 역사 이야기, 책으로 만나다

### 역사 토크

###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1·2

박시백·신병주 외 지음



350만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인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은 완간과 함께 팟캐스트로도 제작돼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인기를 모

았다. '역사 토크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1·2'는 70시간에 이르는 팟 캐스트 방송 내용의 핵심 주제만을 모아 펴낸 책으로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조망하고 있다. 박시백은 팟 캐스트에서 조선의 주요 인물과 사건을 '현재를 살아가는 만화가의 시선'으로 분석했다. 함께 출연한 조선사 전문가 신병주 건국대 사학과 교수는 풍부한 역사 상식으로 역사계 흐름과 쟁점을 짚어주고 전방위 지식인 남경태 작가는 조선 뿐 아니라 동양과 서양을 넘나들며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여기에 책을 펴낸 김학원 휴머니스트 대표가 진행을 맡아 대화를 이끌었다.

책은 토크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실 오류를 꼼꼼히 바로잡고 전체적으로 조선시대 주요 쟁점을 부각시켜 네 사람의 토크를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조선시대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

이다. 1차 왕자의 난은 어쩔 수 없이 일으킨 반란인지, 훈민정음은 누가 만들었는지, 영조는 왜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였는지 등 하나의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만날 수 있어 흥미롭다. 또 정렴결백의 화신으로 알려진 황희 정승, 개혁군주로 꼽히는 정조 등 700명의 인물을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다. 1권은 태조실록에서 선조실록까지, 2권은 광해군 일기에서 순종실록까지 다뤘다.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에서 사건의 핵심을 오롯이 담은 그림과 인물의 특징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림 등 200장을 엄선했다. 〈휴머니스트·각권 2만2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h2>평택시 토지분양 (오픈)</h2> <p>삼성전자 - 120만평      LG전자 - 110만평 (미군기지 이전) (평택 항)</p> <p>■ 총 7필지 1필지(200평) x 평당 130만</p> <p>■ 건축 허가완료 토목,도로공사 완료</p> <p>■ 투자 최적합 - 미래 값어치 평당 300만 (기타 평택 투자물건)</p> <p>①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1,413평) 매가 7억 ② 평택시 고덕면 해장리 (253평) 매가 6억 ③ 평택시 서정동 (59평) 매가 9억 (건축허가 완료) ④ 평택시 지산동 (1,350만) 매가 27억5천만 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공장부지) (1,380평) 매가 8억2천 (서해안고속도로 5분)</p> <p>010-6670-9800      010-7384-7800</p>	<h2>영광주택 매매</h2> <p>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p> <p>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완료</p> <p>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p> <p>직거래 010-6670-9800</p>	<h2>법률 경매</h2> <p>(주)대신경매</p> <p>경매교육</p> <p>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p> <p>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p> <p>3) 경매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인데,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p> <p>※공동 사무실 쓰실분 1. 사무직 정직원 내근하실분 2. 자유 출퇴근 하실분 3. 공동사무실 쓰실분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p> <p>010-6670-9800</p> <p>010-6670-9800      010-7384-7800</p>
---	---	---